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창19:12-29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양의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그 성들은 완전히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폭발로 땅이 꺼지면서 물이 고여 커다란 호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수면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하고 흘러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염도가 너무도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곳의 멸망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피해가 어떤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멸망 가운데서 한 가족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심판과 경고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관찮다고 생각해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들키든 그렇지 않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으로 바뀝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심판이 나의 심판으로 대신 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음으로 인해 롯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롯 한 사람으로 인해 그에게 속해져 있는 가족들 정혼한 사위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 그와 그 친족들만 구원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위들은 롯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가가고 시집하고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2.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라!

롯은 천사가 온 목적이 바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은 왜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첫째 ‘설마 이 성이 망하겠느냐?’라는 자신에 대한 과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타이타닉 배를 만들 당시 슬로건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 시킬 수 없는 배라며 과신했는데 조그만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과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둘째 롯은 소돔의 멸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은 언제나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돔들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소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망한다고 하니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챙겨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한 순간에 전부 없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 갑니다.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와 선한 일 즉 영혼구원에 대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차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의 어려움을 만나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동안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에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이리 저리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그나마 주어진 구원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롯의 아내의 어리석음은 영원한 표증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도움으로 성밖으로 빠져 나온 축복 받은 사람이었지만,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기에 일단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쫓대를 향해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가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옛날처럼 살고 싶은 충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면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예수 날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부여 잡고 있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것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3.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으십니다. 그것도 천국의 계산법으로 말입니다.

“(창 19: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직접 소돔에 가서 롯을 탈출시키려 했다면 롯은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기도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서서 롯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롯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롬 8:34) 누가 경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롬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나라가 변하고 주위가 변합니다. 로스앤젤리스에 한 유대인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노파가 하는 일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 놓고 매일 그 거리를 돌면서 종얼종얼 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는데, 나이는 많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는데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대인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하는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가 되고,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았습니다. 유대인 구의원과 시의원이 뽑혔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 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쫓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다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각자의 상황과 주위의 상황들 속에서 적용될만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당신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있었던) 세상의 미련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겨내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5. '각자 경험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